



바다새들의 풍요로운 쉼터

안마도

면적 2,876㎡, 높이 약 20m,
이용가능무인도서

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백로,
왜가리 등의 바닷새가 관찰된다.

안마도라는 이름은 섬의 생김새가
말에 엮는 안장처럼 생겨 붙여졌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4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이용가능무인도서*인 '안마도(鞍馬島)'를 선정하였다.

*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출입과 일정한 활동 허용(해양레저, 탐방, 생태교육 및 대피소·선착장그 밖의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 등)

천수만 남쪽 입구에 자리 잡은 안마도는 대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보령항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다. 높이 20m, 면적 2,876㎡ 규모이며, 섬의 생김새가 말에 엮는 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섬 가운데는 굽은 모래와 자갈이 우세하며 북쪽으로는 완만한 평지가 이어진다. 섬의 가장자리는 울퉁불퉁하고 거무튀튀한 갯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사암으로 구성된 남쪽 바위산 주변에서는 침식작용에 의한 해식절벽과 동굴 그리고 홀로 우뚝 솟은 바위기둥 등의 경관을 볼 수 있다.

안마도는 천수만과 함께 다양한 바닷새들의 쉼터이자 고향이다. 섬 남측 바위산의 상부는 하얀 눈이 내린 듯 새들의 배설물로 덮여 있는데 곳곳에 가마우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새끼를 키우고 있다. 가끔씩 검은머리물떼새, 백로, 왜가리 등의 바닷새가 관찰되기도 한다.

안마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보령시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